

인구 3백만에 젖소는 2백25만마리 생산량 85% 세계 100여개국에 수출

낙농업은 뉴질랜드 경제의 중요한 요소이다.

뉴질랜드는 수출수익의 65%를 농산물 수출에 의존한다. 낙농은 수출수익의 15~20% 차지한다. 뉴질랜드는 인구가 겨우 3백만인 작은 나라다. 매년 생산되는 유제품 원료의 85%가 넘게 전세계 100군데 이상의 시장으로 수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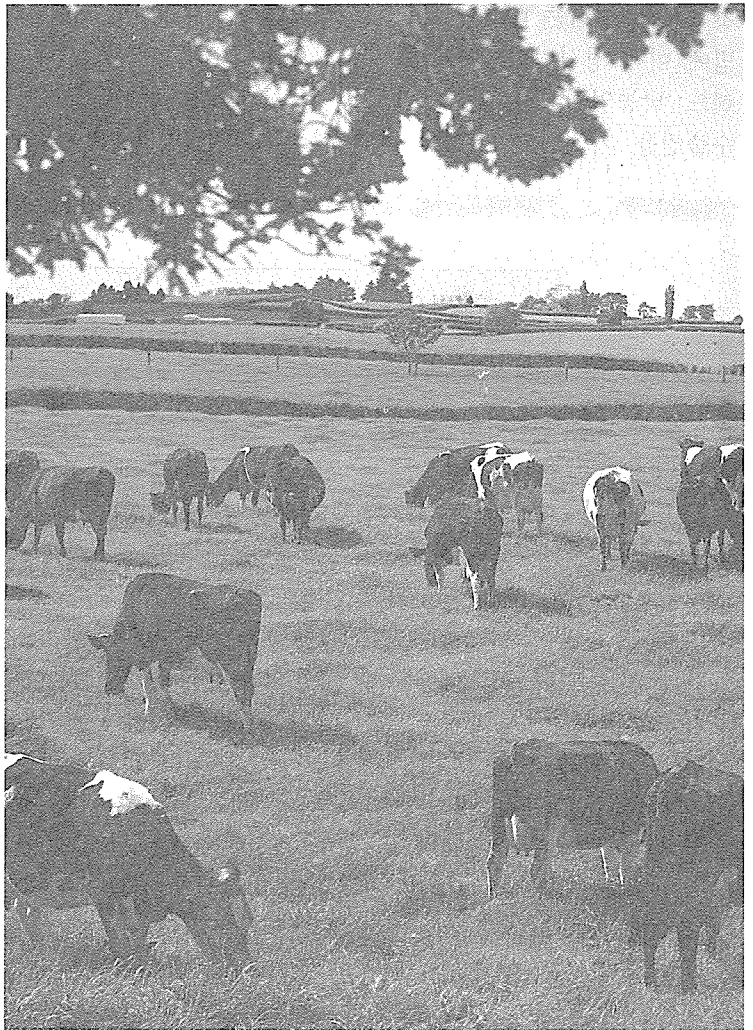
한국은 작지만 뉴질랜드로서는 점점 중요해지는 시장이다. 1990년 한국과 뉴질랜드 낙농 수출입 총액은 뉴질랜드 화폐로 2천4백만 달러였다. 한국은 국가가 이룬 눈부신 경제성장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향상되는 생활수준으로 꾸준히 성장되는 시장으로 간주된다.

뉴질랜드 낙농업계는 한국 유가공업의 성장에 있어 한국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일한다고 본다. 뉴질랜드 낙농협회가 한국산 우유로 천연치즈와 가공치즈를 생산하는 치즈 공장을 광주에 설립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예상대로 치즈 수입 장벽이 없어지면 국내우유 공급량이 수요에 못미칠때 이 공장이 뉴질랜드 제품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다른 낙농협회의 합작회사인 한생식품은 한국에서의 첫째 대리점이다.

세계적으로 뉴질랜드 낙농협회는 전세계 낙농무역의 25%를 차지하는 세계 낙농시장의 주 공급원으로 알려져있다.





이 인상깊은 위치는 뉴질랜드가 세계 유가공품의 1.5%정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달성되어져왔다. 뉴질랜드 낙농협회는 정확히 어떤 곳이며 어떻게 활동하는가?

뉴질랜드 낙농협회(NEW-ZEALAND DAIRY BOARD)는 세계 물가생산비용의 평균치를 훨씬 밑도는 효율적인 뉴질랜드 낙농업계의 수출담당창구이다. 협회는 1961년 국회법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뉴질랜드 낙농업계에서 단독으로 수출권을 가진다. 그 설립이

법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정부는 낙협에 아무런 세세한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뉴질랜드 낙농업은 협조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14,000의 시골 낙농부들은 그들이 생산한 우유를 그 지방에 결연하고 있는 낙농업생산사에 공급한다. 그 농부들은 그 회사의 주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낙농업사는 16개이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협회를 구성한다.

생산회사는 최첨단 수준의 기구와 복잡한 가공기술을 광

범위한 낙농품생산에 사용한다. 이중 90%는 협회의 수출분야에 의해 수출된다. 협회의 전체적인 전략은 농부대표를 포함하고, 산업구조의 모든 면에서 농부들을 관리한다는 보장하에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낮은 생산원가와 독특한 협조체제외에도, 뉴질랜드 낙농계는 농부들이 다른 협조나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그들의 소득은 순전히 시장경제의 성과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 수

韓 · 뉴질랜드 낙농협력사

한국과 뉴질랜드 낙농업의 협력 관계는 2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복장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 HOLYOAKE 뉴질랜드 수상이 방한했을 때 평택부근에 시험낙농장을 설립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의 낙농 협력은 시작됐다. 이의 합의에 의해 뉴질랜드 정부는 FRIESION 낙농자의 가축과 경영진들을 제공했다.

이에따라 1969년 뉴질랜드인 HUTCHERS가 그의 부인과 농장에 거주키위해 도착했다. 1971년 한국

정부는 전라남도와 중부지역에 700여군데의 농장을 세우기로 WORLD BANK와 합의했다. 이의 한국측 진행대행업체는 매일유업 전신인 한국 낙농가공주식회사였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낙농가공(주)에 기술제공을 했다. 1972년부터 1976년까지 많은 뉴질랜드인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그 회사를 도왔고 평택 시험농장은 낙농지도자와 낙농업자의 수련장으로 일조했다. 그 기간동안 뉴질랜드 양질의 소들이 많이 수입됐다.

뉴질랜드에서도 또한 낙농지도자들

을 위한 일련의 수련과정이 부과되었다. MASSEY대학에서는 한국에서 온 수련자들을 위한 기술낙농 수련과정도 있었다.

이렇게 뉴질랜드 낙농업계는 초기 한국낙농업을 여러모로 도왔다. 이 강한 유대는 뉴질랜드 낙농협회가 한국에 한뉴치즈와 한생식품이라는 두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이어진다.

뉴질랜드 낙농협회는 한국을 태평양 연안의 이웃으로 보며 양국간의 상호이익을 위해 한국 낙농업계와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

뉴질랜드 낙농업의 현황

젖소	2,250,000마리
낙농업자 수	14,000
평균 가축 수	160
농장당 평균 종업원 수	2
농부들에게 지급되는 금액	₩104 KG
우유 생산량	7,100,000톤

1990년 주요 수출품

버터	164,000톤
무수유지	39,000톤
치즈	90,000톤
탈지분유	156,000톤
전지분유	202,000톤
단백질제품	65,000톤

익은 국제 유제품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또 빈번히 국제시장에 덤핑할 수 있도록 수출원조를 받는 유럽공동체 같은 많은 원조를 받는 경쟁자들에 위협받는다.

농부들의 보다 나은 소득보장을 위해 협회는 소비재에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소비자나 구매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과 독특한 유제품 판매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협회는 한생식품과 한뉴치즈를 포함한 전세계 60군대가 넘게 협력조직과 자매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회사들은 협회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가능한한 친숙하고, 최상의 기술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또 소비자의 욕구와 선호도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뉴질랜드 총수익에서 유가

공품 수출수익이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 업계가 자연과 깨끗한 환경에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평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질에 관련된 것은 농장에서 시작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온화한 기후와 알맞은 우기덕택에 일년 내내 유축들이 외부에서 풀을 뜯는다. 즉 먹이는 신선한 풀이라는 뜻이다. 북반구 낙농부들이 의존하는 가공식에 드는 비용은 필요없다. 협회는 가공을 위해 공급된 모든 우유들을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농부들이 항상 고질의 우유를 생산한다는 확신을 갖도록 등급 체계를 사용한다.

모든 생산과정에서 질 조정계기들은 아주 엄격한 기준에 맞는 제품만 수출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분배와 영업을 담당하는 자체 회사를 세운 한국같은 외국시장에서는 농장서 시작된 이질이 소비자가 제품을 집어들 때까지 계속된다.

뉴질랜드 낙농업은 순전히 목장에 기초를 둔다. 뉴질랜드 온도와 해양성기후는 양질의 목초에 이상적으로 잘 맞는다. 온화하고 습한 기후는 목초가 일년 내내 자랄 수 있게 한다. 게다가, 온화한 기후덕에 가축들이 일년내내 밖에서 지낼 수 있다. 주낙농지역은 기후와 지형이 가장 좋은 지역에 있다. 유축의 2/3는 북아일랜드 북

쪽에 있다.

낮은 방목비용에 기인한 유가공 경영은 고질의 제품과 농장 운영진에 유축을 적절히 키울 것을 요구한다. 매일 신선한 목장으로의 가축이동은 일년 내내 계속되며 풀이 모자라면 비축했던 건초로 대신한다. 젖소들은 풀이 가장 잘 자라는 시기와 때를 맞춰 이른 봄에 수소와 교미하며, 이 방축관계 때문에 50% 이상이 이른 봄과 여름에 생산되는 계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전국적인 가축의 품종구성은 지난 30년 동안 신중하게 바뀌어왔다. 1963년에는 81%에 달하는 주구성 품종이 JERSEY였다. 현재는 FRIESION이 우세하고 JERSEY가 두번째이다.

전형적인 목장형태는 주인과 종업원한명이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160수정도의 소를 기르는 80헥타르 썸의 땅을 소유한 주인이 경영하는 체제이다. 적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큰 목장을 경영하려면 신중하고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회전식같은 정교한 우유공장과 고속 착유기는 필수이다.

우유는 짜진 즉시 7°C이하로 차게 보관되며 35톤 이상 저장할 수 있는 큰 트럭이나 트레일러로 모아진다.

GEOFF WALKER
(한생식품 사장)